

미국의 미래와 2020년 7월 18일 - 다섯 번째

그 깃발

Jeff Pippenger

2023-09-21

세상의 모든 주민들아, 땅에 사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깃발을 들 때에 보라; 그가 나팔을 불 때에 들으라. 이사야 18:3.

모세로 상징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엘리야로 상징된 사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모세의 "저주", 곧 레위기 26장의 "흠어짐"으로 상징되는 기간 동안 짓밟힌 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죽은 몸 안으로 들어가신다. 그들은 일어서고 그 후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메시지는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이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14:6.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기 발로 일어설 것이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그들에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라.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더라. 요한계시록 11:11, 12.

모든 선지자들은 서로 뜻을 같이하며,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한데 모인다. 에스겔서는 그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내 발 위에 세우시니,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에스겔 2:1, 2.

에스겔은 마지막 때에 죽어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들은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된다. 계시록에서 죽임을 당해 상징적 1,260일 동안 거리에서 짓밟히도록 내버려진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시고, 그들은 자기 발로 일어난다. 에스겔은 그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 말씀은 거리에서 죽어 있던,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그 전체 운동을 다시 살려 일으켜 세운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와 그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 놓으셨다. 그리고 나로 그 뼈들 주위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니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심히 많았고, 보라, 심히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을 돋게 하며 가죽으로 너희를 덮고 너희 속에 호흡을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내가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어, 뼈들이 서로 맞아 각각 제 뼈끼리 들어맞았다. 내가 보니, 보라, 그 위에 힘줄과 살이 오르고 피부가 그들을 덮었으나, 그들 안에는 아직 호흡이 없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바람에게 대언하라, 대언하여 바람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불어 들어가게 하여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그가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일어나 서니, 심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다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내 백성아,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두리니, 그때에 내가 여호와, 곧 내가 말하였고 이루었음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1-14.

다니엘과 요한은 말세에 상징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하나님의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 끓는 기름 속의 요한, 사자 굴 속의 다니엘. 라오디게아 어머니에게서 나온 그 운동은 상징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가 이후 부활하여,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된다. 이는 여섯째 교회인 빌라델비아의 부활로서, 교회가 아니라 운동이지만 여덟째가 된다. 그들이 매장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그들의 죽음을 축하하는 자들에게 짓밟히는 그 기간이 끝날 때, 그들은 강력한 군대로서 두 발로 일어난다. 그들이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듣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3년 넘게 방치된 어떤 시신이든 뼈만 남은 정도로 썩어 버렸을 것이다.

메마른 뼈들이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 성경훈련학교, 1903년 12월 1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활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기록된 것들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것이다. 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할 일이 되어야 한다. 선택된 기별, 제1권, 121쪽.

라오디게아적 경험에서 빌라델비아의 경험으로의 이 부활을 일으키는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메시지에서 비롯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될 때, 신자들은 전혀 다른 종교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2-114.

라오디게아의 율법주의적 종교에서의 경험은 생명을 주는 메시지에 의해 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는 그분의 창조 능력에 관한 메시지이며, 이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하다.

오직 율법주의적 신앙만 가진 얼어붙은 마음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된 더 나은 것들,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보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하겠는가! 마른 뼈들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했다.

Manuscript Releases, 제12권, 205쪽.

율법주의적 종교는 1863년 이후 재림주의가 근본에서 이탈한 사실이 이를 보여주듯, 배도한 종교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을 들어 올리며, 주께서 마른 뼈와 같은 그의 믿음에서 떠난 백성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총회 회보, 1893년 2월 4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는 "신실한 증인"이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신 이, 곧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3:14.

화이트 여사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신실한 증인"으로서 "곧은 증언"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또한 죽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대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가 흔들림을 일으킨다고 알려 줍니다.

내가 보았던 그 흔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주신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불러일으켜진 바른 증언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을 받는 이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 그로 하여금 기치를 높이고 바른 진리를 쏟아내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언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흔들림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참된 증인의 증언에 절반도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그 엄숙한 증언이, 전적으로 무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볍게 여겨져 왔다. 이 증언은 깊은 회개를 일으켜야 한다.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는 그것에 순종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천사가 말하였다. "들으라!" 곧 나는 많은 악기들이 모두 완전한 선율로 함께 울려 퍼지는 듯한, 달콤하고 조화로운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 본 어떤 음악보다도 뛰어났고,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한 듯했다. 그 소리는 내 온 존재를 관통하며 전율케 했다. 천사가 말하였다. "보라!" 그러자 내 시선은 내가 보았던, 크게 흔들린 무리에게로 향했다. 나는 전에 영혼의 고통 속에서 울며 기도하던 이들이 내게 보였다. 그들을 둘러싼 수호 천사들의 무리는 배가 되었고,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대처럼 정연한 질서로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들이 견뎌 낸 혹독한 싸움과 그들이 지나온 고통스러운 투쟁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심한 내적 고통으로 각인된 그들의 용모는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것은 그들로부터 가장 깊은 감사와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이 무리의 수는 줄어들었다. 몇몇은 흔들려 도중에 떨어져 나갔다. 승리와 구원을 그만큼 소중히 여겨 그것을 위해 끈질기게 간구하고 애써 싸우던 이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고, 어둠 속에 남겨졌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는 곧 진리를 붙잡고 대열에 합류한 다른 이들로 채워졌다. 악한 천사들이 여전히 그들을 에워쌌으나, 그들 위에 아무 권세도 행사하지 못했다.

나는 갑옷을 입은 자들이 큰 권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매여 있었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매여 있었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받던 정직한 이들이 이제는 그것을 간절히 붙들었다. 친족들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들에게는 오직 진리만이 높임을 받았다.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여 주리고 목말라했다. 진리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했다. 나는 무엇이 이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은 늦은 비요,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시원케 함이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초기 저술, 270, 271.

심한 흔들림 후에 군대를 일으키는 라오디게아에 대한 곧은 증언은 죽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향한 메시지이며, 그 뼈들은 2020년 7월 18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 모세와 사자인 엘리야의 메시지를 상징한다.

우리의 교회와 기관들에게 바른 증언을 전해야 한다. 잠자는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될 때 착실한 진전이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의 큰 필요를 살펴보자. 주님께서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깊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주는 영향이 없이는 진리는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Review and Herald, 1902년 11월 18일.

우리는 일곱 우레의 역사를 나타내는 네 개의 이정표가 모든 개혁 노선에 나타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에 더해, 각 개혁 노선에서 이 네 이정표 각각이 동일한 예언적 주제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있다. 모세의 경우, 일곱 우레를 예표하는 네 이정표 각각에서의 주제는 선택된 백성과의 언약이었다.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궤였다.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죽음과 부활이었다. 밀러파의 경우에는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이었다.

퓨처 포 아메리카에 따르면, 그것은 이슬람이다. 2001년 9월 11일에는 이슬람이었다. 실패한 예언과 첫 실망, 지체의 때의 시작과 함께 2020년 7월 18일에도 다시 이슬람이었다. 일어서는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는 세 번째 이정표는 네 바람의 메시지로써, 성경 예언에서 '분노한 말'로 불리는 이슬람을 나타낸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불들고 있는데, 그것은 풀려나려 하고 온 지면을 가로질러 질주하려 하는 분노한 말로 상징되며, 그 지나가는 길마다 파괴와 죽음을 몰고 온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둔감하고 냉랭하며 죽은 자와 같이 있을 것인가? 오,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영과 숨결이 그분의 백성에게 불어넣어져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살게 되기를! 우리는 그 길이 좁고 문이 협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넓음은 끝이 없다. 원고 발표집 제20권, 216, 217쪽.

엘리야와 모세가 일어서자마자, 그들은 표징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요한계시록 11:12.

다음 글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기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